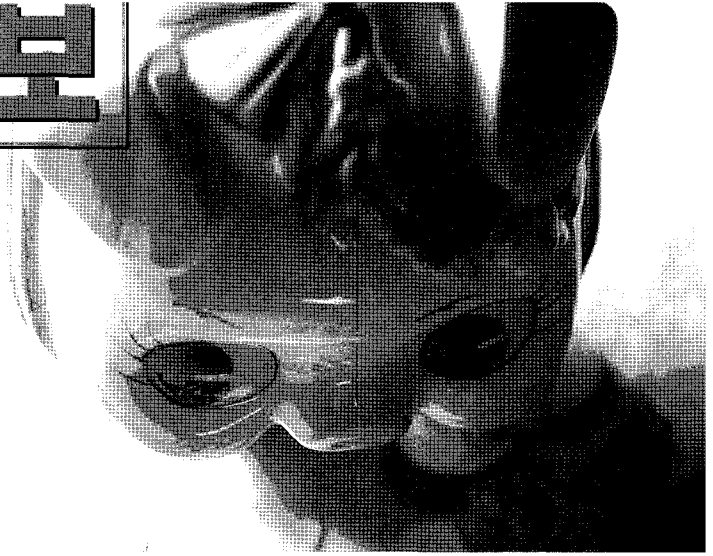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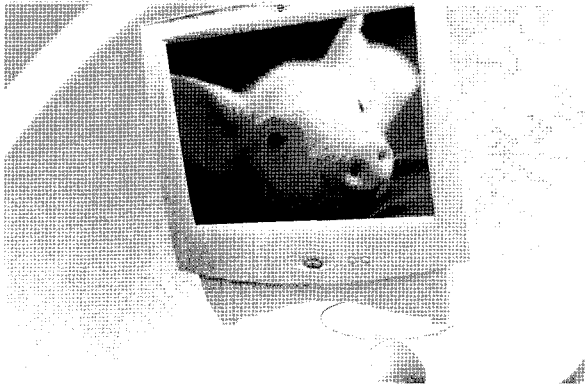


# 축산 · 정보



## 양돈용 배합사료 내 구리·아연 제한기준 강화

### - 정부 사료 공정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사료공정 규격 내 구리와 아연의 함량 기준이 당초 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다시 조정돼 '05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0월 7일 생산자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육성돈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성장단계별 함량기준을 세분화하고 구리에 대해 사료내 함량기준은 젓먹이 및 젓뎨용의 경우 현행 170ppm이하에서 135ppm이

하로 조정, 육성돈은 현행 수준 130ppm이하에서 전기(체중 20~50kg)와 후기(체중 50~80kg)로 구분해 전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 후기는 60ppm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비육돈 및 종돈용은 현행 35ppm이하에서 25ppm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한편 아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양환경 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연의 함량은 젓먹이 및 젓뎨용이 120ppm이하, 육성돈 전기가 100ppm이하로 현행 유지되며, 육성돈 후기는 75ppm이하로, 비육돈 및 종돈용 또한 90ppm이하에서 75ppm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2010년부터 구리중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과 육성돈 전·후기용은 개정안의 50%를

### ※사료중 특성성분의 함량 제한기준 개정(안)

성분명	사료명	현행	용기	기준	개정(안)
가. 구리	양돈용 배합사료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 : 170ppm 이하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 : 135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용 : 13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3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2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2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25ppm 이하
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 : 120ppm 이하 (실사방지를 위하여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 : 120ppm 이하 (실사방지를 위하여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 다만 2010.1.1부터 삭제)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용 : 10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75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75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7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90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7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75ppm 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 : 75ppm 이하

감축하고, 아연의 경우 젓먹이 및 젓뎨돼지용에서 '실사방지를 위해 산화아연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이하'라는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 사료내 동물약품 23종 허용 등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농림부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을 10월 14일 입안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허용품목을 종전의 53종에서 23종으로 축소하고, 국내외 미사용 물질, 내성이 강한 동물약품, 축소하고, 국내 대체가능물질을 제외시켰다.

허용 품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4급암모늄, 설파메타진, 바시트라신아연, 엔라마이신, 황산폴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염산린코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페니실린, 나라신,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크로피돌, 설파치아졸, 펜벤다졸, 이버멕틴이다.

또한 사료내 곰팡이 독소 및 잔류농약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도 확대했다. 유해물질 관리대상 종류로 현재 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셀레늄, 아플라톡신B, 등 8개 품목에 아플라톡신 B<sub>2</sub>, G1, G2, 오클라톡신A 등 곰팡이독소가 추가됐다.

아플라톡신 B<sub>2</sub>, G1, G2,는 배합사료의 경우 어린송아지 및 어린병아리용, 젓먹이·젓뎀돼지용, 육계전기용, 비유젓소용은 허용기준이 10ppb이고, 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 기타 배합사료는 20ppb이다. 또한 식물성단백질류, 곡물류, 곡물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등 단미사료는 50ppb이다. 오클라톡신A의 허용기준은 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 전체 배합사료와 유해물질 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등 단미사료는

200ppb이다.

사료내 잔류농약의 범위와 허용기준도 현재 디디티, 페니트로치온, 펜치온, 카바릴 등 17종 관리하던 것을 27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EPN, 베노밀, 퍼메쓰린, 에치온, 콜로르피리포스, 페노브카브, 이소프로카브, 펜발러레이트, 에디펜포스, 이소펜포스 등 10개 품목이다. 허용기준으로 EPN은 0.5ppm, 베노밀 20ppm, 퍼메쓰린 10ppm, 에치온 10ppm, 콜로르피리포스 0.5ppm, 페노브카브 1.0ppm, 이소프로카브 0.5ppm, 펜발러레이트 5.0ppm, 에디펜포스 50ppm, 이소펜포스 1.0ppm이다.

이외에 사료사용 제한물질에 가축의 사체가 새롭게 포함됐다.

##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재개

- 농림부, 10월 18일부터 사업 중단 509개소에 자금 지원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이 10월 18일부터 재개됐다.

농림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가축분뇨 액비에서 미량 광물질인 구리와 아연 성분이 비료공정규격보다 초과 검출돼 올해 액비저장조 설치 계획수량인 800개소중 509개소의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던 것을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키로 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사업재개와 함께 보완책으로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액비 관리 전담직원 지정·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액비저장조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점검해 노후한 시

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도 추진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약취규제와 관련, 축산분뇨의 약취저감을 위해 사료업체에서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를 첨가해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키로 했다.

###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의 바람직한 길 모색

#### - 9월 21일 국회 김영덕 의원 정책 간담회 개최

‘바람직한 축산분뇨 액비(液肥)화 사업 간담회’가 9월 21일 국회의원 김영덕 의원,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최영열 본회 회장, 흥성 쌀작목반 김명구 반장, (주)육성코리아 김금수 대표,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덕 국회의원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양돈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액비’ 관련 문제들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축산 분뇨 액비화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영열 본회 회장은 가축분뇨발효액비 비료공정 규격이 실증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제정되었어야 함을 밝히고,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액비 기준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질소 농도에 상응하는 구리와 아연의 농도가 규정되어야 하며, 사료공정서에서 정하는 구리와 아연의 농도는 현행대로 하되 비료공정 규격은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안)으로

### 신임 농림부 차관 ‘이명수’ 씨



이명수 농림부 차관

정부는 10월 14일 현 농림부 이명수(李銘洙, 53) 기획관리실장을 새 농림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행시 19회로 공직에 입문

해 국제협력담당관, 국제농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협상에 참여했다.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미시간 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통상협력1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유통정책과장, 총무과장,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국제농업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농림부에 건의하고 농림부와 환경부에서도 합동 가축분뇨 이용대책(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한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분뇨를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경종농가 연결,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퇴·액비 수급지원 등 종합적인 분뇨관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 “돼지분뇨 배출원단위 재설정된다”

#### - 환경부, 가축분뇨 종합관리대책에 배출원 단위 조정 포함 밝혀

본회가 그동안 기존의 돼지분뇨 배출원 단위가 8.6ㄹ로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아 이를 4.6ㄹ정도로 하향조정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

## 한국마사회, 'KRA' 새로운 CI 선포



한국마사회는 10월 1일 경기 과천 경마공원에서 '대취 55-도전과 새로운

탄생'이라는 주제로 창립 55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을 가졌다.

마사회는 'KRA(Korea Racing Association)'라는 새로운 CI를 도입해 끊임없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 CI 'KRA' 로고는 정직한 KRA 로고에 심플한 획을 더해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비상하는 획은 끊임없이 도약하는 KRA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Racing의 'R'의 특징은 국민 레포츠 경마의 시행 주체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본회의 요구에 따라 돼지분뇨의 배출원 단위를 재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적정 처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99년 표준사육모델을 근거로 세정수 사용량을 산정·고시하였으며, 축산 사양기술의 발달과 세정수 사용 억제 등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실제 발생량은 배출원 단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배출원 단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종합관리대책에 포함시켜 앞으로 현장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축별 배출원 단위를 재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행 돼지분뇨

배출원 단위는 실제 배출량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한다면 배출원 단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돼지분뇨의 배출원 단위가 재설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최근 충남 홍성·예산지역 등 현실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배출원 단위 기준을 가지고 농장을 단속했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등에서는 현행 배출원 단위의 적용을 지양해 양돈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10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러한 정부의 돼지분뇨 배출원 단위 재설정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처리실태 단속시 배출원 단위가 조정될 것을 감안,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최근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재검토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청에서 단속시 이러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했었다.

## 축발기금 폐지에 한 목소리 'NO!'

- 축발기금존치 대책위원회, '축발기금 폐지 반대 집회' 등 실시키로

기획예산처 기금운영평가단의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폐지와 관련해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존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에 따라 '축발기금존치 대책위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팔레스호텔에서 양돈·한우·낙농·양계 등 업계 관계자들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 관계자들은 축발기금 존치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협의하며, 주요 안건으로 대정부 건의문 분구 수정 및 단체별 플래카드를 제작해 개시하고 축발기금 폐지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축발기금 폐지 반대 집회를 10월중에 시·군단위 축산관련단체별로 주관해 실시하고, 11월 11일 예정인 '농업인의 날' 행사시 '축발기금폐지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대정부 건의문(안)에는 축발기금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농촌의 중심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인식해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발기금을 존치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또한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므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물론 세분화와 전문화 추세 등 시대적 요구와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 3년 연장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9월 18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 존속기간을 2007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지난 2002년 1월 26일 설치됐으나 설치기간이 2004년말로 한정돼 있어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

### 한국자조금연구원 시단법인 인가

농림부는 10월 4일 한국자조금연구원의 시단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자조금제도의 수행 산업과 관리행정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제3섹터(NGO) 성격을 띄며, 농업 자조금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사업수행을 자문함으로써 한국 농민의 자구대책에 의한 품목별 국제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의 대표자는 박영인 세계농업연구원장이며, 원장은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이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8 일산빌딩 6층
- 전화 : 02-516-6415

른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위원회 유효기간을 2007년말까지 3년 연장해 농업·농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기한 11월 말까지 연장

농림부는 9월 30일 현행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 지침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대체자금 7조원 지원과 관련해 9월 10일 농업인 신청금액이 계획 대비 103%인 7조2천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신청 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

의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 신청기간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농림부는 시행지침을 보완해 지원대상금액('03말~'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해 지원한도를 70% 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과거 부채 대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0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까지 지원하며,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에 있어서 전업농 규모의 2/3 이상인 농업인에서 1/2 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천만원 이상을 2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규모와 부채규모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및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년 1월 8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했다.

### 8월 돈열 항체양성률 94.8%

8월 돈열 항체양성률은 94.8%로 나타나 2004년도 1월이래 처음으로 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까지 누계 95.8%를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비육돈 농가 726

호, 8천902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률이 94.3%를 기록해 지난 달 95.0%보다 감소, 번식돈 농가는 297호, 2천397두를 검사해 96.3%로 지난달 97.0%보다 감소했으며, 자돈(2농가, 4두)은 100%로 나타났다.

### 살모넬라균증 의심 돼지 즉시 격리 조치 취해야

농촌진흥청은 최근 축산농가의 살모넬라균증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농가들이 이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는 살모넬라균증이 의심되는 돼지는 즉시 격리해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감염이 우려되는 가축의 반출을 금하고, 구입시에도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구입하고 구입 후에는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질병 유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진청은 살모넬라균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며, 가축이나 사람에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균이나 법정가축전염병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 균은 주로 가축의 소장 하부에서 대장 상부의 점막에 정착하고 있으므로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시 폐지를 매단 상태에서 내장을 적출해 내용물이 고기에 묻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열에 약한 균이므로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충분히 익혀 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가축방역관리에 만전 기해야”**

**- 종돈장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등 방역관리 철저이**

농림부는 본회의 도축장 돼지수송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방역 요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실시한 방역관리실태의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시·도 및 시·군에서 종돈장 및 돈열 방역 등의 가축방역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우려해, 각 시·도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종돈장의 가축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는 등 가축방역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돈열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종돈장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농가홍보용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일지’를 제작·배포하고, 사양관리 일지에 축산농가에서 사육·방역 사항을 매일 작성토록 지도하며 외국인 고용농장의 리스트를 작성해 농장주에 대한 교육과 정기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해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라 도축장에 출입하는 가축 수송 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돈(豚) 좋을시 GO!” 너도! 나도!  
2004 제1회 포크페스티벌 "우리 돈(豚) 좋을 시GO!"**



- 일시 : 2004년 11월 3일 10:30~19:00
- 장소 :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 주최 : 농 협
- 후원 : 농림부, 양돈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양돈자조  
활동자금관리위원회

■ 목적 : 양돈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큰 축제를 통해 양돈 생산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양돈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촉진을 기함

■ 주요 행사내용

- 시식마당 : 2004인분 돼지국밥 나눠먹기, 전국 돼지고기 맛집 마당, 브랜드육, 수출부위 시식
- 전시·홍보관 : 소비자 정보관, 생산자 정보관
- 요리대회 : 대한민국 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
- 공연 : 초청가수 공연, 양돈농민·소비자 노래자랑
- 우리 돼지사랑 이색 이벤트 : 기네스 도전, 세계 최대 돼지꼬치구이 만들기, 돼지 오줌보 축구대회, 돼지 그리기 대회, 돼지고기 홍보 영어 참고서 ‘포크 포크 포크 잉글리쉬’ 발행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생  
방향 대화 활성화”**

농림부는 연내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생산·유통과정이 건실한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브랜드 경영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축산물브랜드의 제품 특징과 판매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브랜드 경영체의 홈페이지에 자동링크 되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브랜드 경영체를 위한 지식정보 및 성공사례, 문제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마당을 구축하고,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농가와 정책담당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본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기관을 축산물등급관정소로 선정하고 11월경 시연회를 거쳐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혈우병 치료제 생산하는 돼지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IN2GEN과 공동으로 돼지의 형질을 변환시켜, 혈우병 치료제인 인체의 ‘폰 빌리브란트 인자’를 젖을 통해 생산하는 돼지를 개발했다. 혈액 응고에 관계하는 물질인 폰 빌리브란트 인자와 제8인자는 일반적인 혈우병 치료제이며, 제8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형

질 전환 동물은 미국의 돼지와 독일의 면양이 있었으나, 폰 빌리브란트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돼지를 개발한 것은 축산연구소가 세계 최초이다. 그러나 개발한 돼지의 젖에서 고순도의 혈우병 치료제를 추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어 제약 업체 등과 기술 교류를 추진중이며, 이 치료제가 당장 상업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1999년 사람의 조혈촉진 유전자를 이식시켜 빈혈치료물질인 ‘에리트로포에틴’을 추출할 수 있는 돼지와 혈전증치료물질(tPA)을 생산하는 돼지를 탄생시켰다.

**칠레산 돈육 수입국중 최대**

농림부 수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9월중 총 7천737톤으로 지난달 9천206톤보다 16% 감소했으며, 9월까지 총 누계 수입물량은 8만861톤인 것으로 나타나 '03년 총 누계 6만790톤보다 2만71톤이 증가했다.

여기서 냉장은 266톤, 냉동은 7천449톤으로 합계 7천715톤으로 집계됐으며, 부위별로는 각각 삼겹살이 5천509톤(전월 6천7톤), 갈비 919톤(전월 1천36톤), 목심 883톤(1천174톤), 앞다리 76톤(전월 137톤), 뒷다리 40톤(전월 68톤), 안심 23톤, 기타 287톤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로는 8월에 이어 9월도 칠레산 수입물량이 1천48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는 1천82톤, 네덜란드는 963톤이 수입됐다. 그밖에 캐나다 674톤, 오스트리아 665톤, 벨기에 576톤, 헝가리 552톤, 덴마크 471톤, 폴란드 374톤, 미국 365톤, 스페인 210톤, 호주 51톤, 멕시코와 핀란드 48톤, 영국 20톤 순이었다. **양동**